

치 사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한 해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의미있는 시간에 여러 스님과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은 남다른 포교 원력과 실천행으로 포교 현장에서 정진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기에 더욱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한 해의 성취를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수상자들과 함께 포교를 실천해 온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바쁘게 지내왔던 한 해를 점검보고,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움으로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인연, 떠나간 인연, 불쾌하거나 기뻐던 인연 등 내 삶의 흔적을 남긴 많은 인연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나간 일에 미련이 생기고 앞으로의 일에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향해 생각을 치달리게 하고 과거를 돌아보아 근심 걱정 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살다보면 때론 좌절감에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에 부처님의 삶처럼 닮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미련과 의미없는 막연한 희망은 속히 버리고 하루를 살아도 역겹을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한 순간을 살아도 자비를 실천하고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인 지홍스님을 비롯하여 수상자 스님들이 사찰을 운영하면서 지역포교에 매진하기까지 많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쳤을 것입니다. 재가불자 수상자 역시 현장에서 겪는 좌절감에 때로 주저앉고 싶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붓다의 삶처럼 살고자 하는 원력이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결과이기에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을 귀감삼아 우리는 스스로 떳떳한 주인이고 본래 청정한 존재로서
못 생명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포교사’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
시길 기원합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선업이 쌓여 부처님 법이 모든 이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
날까지 함께 정진해 갑시다. 점점 추워가는 날씨이지만 저마다의 훈훈한 마음으로 움
추린 어깨를 활짝 펴고 새로운 나날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불기 2558(2014)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